

사설

불교언론인의 사명

우리나라의 언론을 이끌어가는 신문·방송 언론인들의 전국적인 신행 단체가 출범하였다. 지난 1일 불교방송 법당에서 "한국불교언론인회"가 창립법회를 가진 것이다. 우리사회의 여론을 주도하는 언론인 불자 지성인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모였다는 것은 참으로 의미깊은 일이다. 우선 이번 언론인 불자들의 결속을 환영하고자 한다.

주지하는 바와같이 오늘날 언론의 힘은 대단하다. '제4의 권력'이라고 할 만큼 국가와 세계를 움직이는 힘이 있다. 특히 정보통신의 발전에 따라 정보화가 급속히 진행됨으로써 언론매체들이 갖는 정보전달의 효과와 과정은 상식을 뛰어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정보통신의 발전에 따라 불자들이 신심과 친목을 다지면서 불교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노력을 하겠다고 선언하고 나선 것은 시의적절한 일이다. 우리 언론인불자들의 이러한 호법·호교적 서원에 바탕을 둔 범종단적 차원의 활동에 큰 기대를 걸지 않을 수 없다. 불교를 호치하고 불교발전의 원동력이 될 것이다. 이번 한국불교언론인회의 결성을 계기로 다음과 같은 역할을 기대한다.

첫째, 언론포교사로서 사명감을 갖고 불교포교에 앞장서길 바란다. 오늘날 정보매체는 다양한 방식으로 정보의 생산·저장 및 분배를 담당하고 있다. 이 정보매체를 이끌어가는 언론인들은 어느 직업에 종사하는 불자들 보다 대중들에게 주는 영향력은 크다.

둘째, 여론주도권을 담당하는 사회지도자로서 수행을 통한 깊은 신앙심을 바탕으로 정토사회건설에 앞장서야 한다. 특히 불교언론이 언론계에 확립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바로 보고, 바로 생각하고, 바로 말하며, 바로 행동하며, 바르게 생활하고, 바르게 노력하고, 바른 염원으로, 바

르게 집중하는 팔정도의 실천을 보급시키는 사업도 필요할 것이다.

셋째, 부처님의 가르침을 지키고 불교를 호치하는 파수꾼이 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사회 곳곳에서는 불교를 비방하거나 특정종교 편향정책으로 인하여 많은 종교적 갈등·대립을 겪고 있다. 특히 정부의 종교 편향정책으로 말미암아 불교가 많은 피해를 받아온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다. 신문·방송 등 언론매체를 통한 잘못된 정보의 생산과 유통으로 불교계가 고통을 받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불교의 왜곡과 탄압에 대해 불자언론인들이 올바른 비판정신으로 잘못을 일깨워주고 바로잡는 일에 적극 나서야 한다. 언론의 공익성·공공성을 높이고 국민의 알권리를 신장시키는데 간접적으로 기여하는 길이다.

넷째, 불교계의 국가지도자들을 키우고 불교문화예술의 창달에 건진자가 되어주길 기대한다. 오늘날 정치가 가정의 부엌살림까지 파고 들고 있다. 정치의 영향력은 대단하다. 따라서 올바른 정치 지도자들의 양성은 어느 분야보다도 더욱 중요하다. 또한 문화예술인들의 역할이 날로 증대하고 있다. 올바른 정치인과 문화예술인들이 불교계에서 많이 배출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어야 할 것이다. 민주주의에 앞장선 전문성인의 출연으로 민주통일정도가 구현될 수 있도록 인재의 발굴과 양성에 힘을 모아주었으면 한다.

다섯째, 다른 직능불교단체들과 연대하여 범종단적인 차원에서 한국불교의 현실진단과 미래의 비전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우리 사회를 이끌어가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각 계층의 불교신행단체들과 연대사업을 활성화하고 서로서로 통배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자.

국립공원 환경우선 관리

환경부 개발억제 '국민학습장' 활용 공단직원 사법권 부여 범칙행위 단속

국립공원이 자연환경보존 중심으로 관리되고 관리제인도 국고에서 지원된다. 또 국립공원 관리공단 직원들이 사법권을 부여 받아 28일 사법경찰 반대식을 갖고 쓰레기 투기등 범죄행위 단속에 나섰다.

환경부는 4월23일 "국립공원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자연경관지와 생태계의 보고이므로 공

원자원과 생태계의 보전기능을 강화하여 자연환경보존 중심으로 관리하고 관광 위락지가 아닌 국민의 진정한 학습장과 자연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탐방지가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를위해 환경부는 국립공원의 자연생태계를 최대한 보전하고 인공시설은 최소한의 편의시설과 보호시설로 한정하는 한편

공원탐방프로그램을 개발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또 국립공원 종합탐방안내소 설치를 확대해 공원 이용의 효과를 극대화 하고 안내객의 편의를 돕는다는 계획이다. 공원 집단시설지역의 개발은 억제하고 편의 시설은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국립공원은 현재 19개 국립공원을 관리하고 있다. 그러나 사법경찰의 자연보존 중심의 공원관리 방침에 대해 교계와 공원내 사람들은 적극 환영의사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사법경찰의 활동과 관련 사법경찰이 자칫 공원내 사찰의 자율적인 종교활동을 제약할 가능성이 있어 이에대한 사찰과 당국의 긴밀한 협조체계가 요망된다는 지적이 있다.

4월28일 도봉산 국립공원에서 반대식을 갖고 활동에 들어간 국립공원 관리공단 직원으로 구성됐다. 각 공원에 4~10명씩 배치된 사법경찰은 공원내에서 오물방치 자연훼손 음주소란등 19가지 범죄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환경부의 자연보존 중심의 공원관리 방침에 대해 교계와 공원내 사람들은 적극 환영의사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사법경찰의 활동과 관련 사법경찰이 자칫 공원내 사찰의 자율적인 종교활동을 제약할 가능성이 있어 이에대한 사찰과 당국의 긴밀한 협조체계가 요망된다는 지적이 있다. <임연태 기자>



◇2003년 지상12층 지하2층으로 완공될 동국대부속 불교종합행정관 투시도

동국대병원 16일 기공 벽돌 1장 동참운동 전개

동국대(총장 송석규)는 16일 오후 3시 경기도 고양시 석사동 병원건립부지 현장에서 불교종합법원 기공식을 갖는다.

동국대는 이날 기공식에서 병원 건립 재원 확보를 위한 '자비의 벽돌 한 장 동참운동'을 전개하는 한편, 김병조·홍진경씨의 사회로 국악인 신영희씨, 가수 최진희 설운도 김홍국 H.O.T 이지훈 등이 출연하는 축하공연을 계획하고 있다.

화엄사·마곡사 차기주지 '경선'

불국사는 경선 미지수... 총무원, 송광사주지 임명 보류

조계종 제21교구본사 송광사(주지 현교) 주지 임기가 3일로 종료된 가운데 아직 후임주지가 임명되지 않고 있다. 송광사 방장 보성스님이 현 주지 현교스님을 후임주지로 추천하는 추천서를 총무원에 제출했으나 총무원은 조파일 이후로 임명을 보류하고 있다. 한편 7월 1일과 19일, 29일 각각 현주지 임기가 만료되는 화엄사, 불국사, 마곡사도 5월 25일과 6월 5일, 6월 1일 차기 주지 추천자 선출을 위한 산중

총회를 가질 예정이다. 화엄사는 명섭스님(전 천은사 주지)과 종걸스님(태안사주지) 등 2명 이상의 후임주지 추천자가 물망에 오르고 있다. 불국사는 문중 합의도 추천자를 추대하기 위한 움직임이 보이고 있으나 경선 상황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나 중앙선관위는 7일 회의를 갖고 불국사 교구 총회위원 보궐선거와 후임주지 추천문제를 논의할 계획이다. 마곡사는 현재 진허스님(동화사 금담선전장) 능엄스님(前 마

곡사주지) 등 2명 이상이 후임 주지를 겨냥하고 있다. 조계종 60여 전통사찰 홈페이지 서비스 개시 조계종은 60여 전통사찰 홈페이지 제작을 완료하고 4월29일부터 인터넷서비스를 개시했다. 교구본사와 주요 전통사찰의 역사와 전통, 성보문화재 소개 등이 수록돼 있다. 조계종은 올 내 1백여 사찰의 홈페이지를 개설, 서비스할 계획이다. 주소는 temple.buddhism.or.kr

"종교간 화합이 국난극복 열쇠"

IMF체제 이후 사회적 병리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는 원인은 무엇이며, 그 고통과 좌절의 시대를 사는 종교인의 자세와 역할은 무엇인가. 각 종교계 지도자들은 그 원인을 정신적 공황에 따른 사회적 가치관의 문제라고 지적하고, 철저한 자기반성에 따른 종교간 화합을 통해 국난극복의 단초를 제시해야 한다는 대전제에 인식을 같이했다. 심철승가사의 종교지도자 초청좌담 "자기반성 통한 정신각성 촉구" '연대와 화합' 공동 인식 필요

천주교(합세용 정의구현사제단 고문) 원불교(김현 사회개혁교무단 부단장) 등 각 종교계 지도자를 초청, 4월28일 조계사문화회관에서 '이 땅에 자비와 평화를...'을 주제로 한 공개좌담회를 개최했다. '국난극복을 위한 종교인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기초발제에 나선 청화스님은 "다종교 사회에서 자칫 경쟁에 빠지기 쉬운 종교계가 사회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너'와 '나'라는 이분법적인 사고가 아닌 '우리'라는 참된 화합의 모습을 보여준다면 국민들에게 새로운 희망이 될 것"이라며 원용화합을 통한 종교인의 역할을 강조했다. 또 "종교인들이 현실의 문제를 보다 적극적으로 구제적인 모습으로 풀어나가야 할 것"이라며 종교인에 대한 사회적 요구와 자세를 강조했다.

심철승가사의 종교지도자 초청좌담 "자기반성 통한 정신각성 촉구" '연대와 화합' 공동 인식 필요

심철승가사의 종교지도자 초청좌담 "자기반성 통한 정신각성 촉구" '연대와 화합' 공동 인식 필요



◇28일 열린 '이 땅에 자비와 평화를...' 공개좌담회.

"자유시장경제제니 자본주의니 하는 것도 사람을 살리고 약소국을 일으켜 세울 때에만 인정할 수 있는 것이며 당연한 과정은 제3의 이데올로기 창출"이라고 주장했다. 김복사는 "제3의 이데올로기는 연대 이데올로기요 유기체이데올로

기며 유기적 공동체이데올로기"라 규정 종교간의 연대와 화합을 역설했다. 합세용신부와 지선스님도 죽음과 소유에 대한 성직자와 수행자의 허구성을 지적했다. 도필선 기자

현대만평 박구원

항상 밝혀주소서

쌍계사 승가대학 학인모집

○ 쌍계사 승가대학 1998년도 신입생 및 편입생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

<p>■ 모집학과</p> <p>사미과 00명</p> <p>사집과 00명</p> <p>사교과 00명</p> <p>■ 입학자격</p> <p>사미계 수계자로서 조계종 승려</p> <p>■ 모집기간</p> <p>수시접수</p> <p>■ 준비물</p> <p>대가사, 오조가사, 장삼, 발우, 기타 입학금 및 방부비 일체 없음</p> <p>* 교재는 사중에서 제공</p> <p>■ 전형방법</p> <p>서류접수후 면접</p> <p>■ 제출서류</p> <p>① 승적사본 - 1부</p> <p>② 각 과 수료증(편입생) - 1부</p> <p>* 승적사본 및 기타 서류는 내사 후 작성</p> <p>■ 교과과정</p> <p>1년: 내전 - 치문 외전 - 불교학 개론, 불교의식, 영어회화, 서예</p> <p>2년: 내전 - 서장, 도서, 선요 외전 - 불교문학사, 불교의식, 영어회화, 서예</p> <p>3년: 내전 - 능엄경, 금강경, 원각경, 기신론 외전 - 선학개론, 불교의식, 영어회화, 서예</p> <p>4년: 내전 - 화엄경 외전 - 원시불교사상, 종교사회학, 불교의식, 영어회화, 서예</p>	<p>■ 교 수 진</p> <p>○ 내전교수 ▶ 강주: 통광스님(탄허스님으로부터 전장) 은에서 승가대학원 교수, 동국대 역경원 역경위원 현 칠불사 주지, 역서(고봉화상선요·이록)(초의 다선집)등</p> <p>▶ 중강: 월호스님 동국대 철학박사, 동국대 선학과 강사 역임 주요논문 <도원선사의 파선관> <고려 예심의 간화선 연구></p> <p>○ 외전교수 ▶ 서예: 선곡 스님(쌍계사 주지)</p> <p>▶ 선학개론, 종교사회학: 월호 스님(쌍계사 중강)</p> <p>▶ 원시불교사상, 불교학 개론, 불교문학사: 전재성 서울대 졸업, 동국대 철학박사, 독일 본 대학 강사, 동국대 강사 주요논문 - <초기 불교의 개금 평등론 연구> 저서 - <배알리어사전 I(어휘편), II(문법편)></p> <p>▶ 영어회화: 김승인(한국외국어대 영어과 졸업)</p> <p>○ 특강교수 ▶ 고산 큰스님(쌍계사 조실) - 과목: 화엄경, 불교의식</p> <p>▶ 덕민 스님(전 쌍계사 강사)</p> <p>■ 장 학 금</p> <p>전원 장학금 지급</p> <p>■ 특 전</p> <p>① 졸업후 각자 적성에 맞춰 유능한 강사(전강), 포교사, 율사, 예식종장이 될 수 있도록 지원.</p> <p>② 상급학교 진학시 장학금 지급</p> <p>■ 문 의 처</p> <p>경남 하동군 화개면 운수리 208번지 쌍계사 승가대학 ☎ (0595)83-1906, 종무소 ☎ 83-1901</p>
---	---

대한불교 조계종 제13교구본사
쌍계사 주지 선곡 쌍계사 승가대학 학장 통광